

1. 황량한 광야의 황망한 마음

- 사무엘이 죽고 **바란 광야**로 가는 다윗

⇒ 복권할 기회가 완전히 상실됨

⇒ 의지할 곳이 없어 마음이 무너짐



2. 베리알의 아들 나발

- 나발의 목동들을 돕는 다윗
- 일방적으로 나발에게 ‘보호세’를 요구하는 다윗
- 다윗의 요구를 거절하며 그 이름을 짓밟는 나발
⇒ 나발에게 분개하며 보복하러 가는 다윗

3. 다윗을 깨우는 아비가일

-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아비가일
 - ⇒ 엄청난 양의 예물을 준비함
 - ⇒ 극진한 예로 다윗에게 나아감
 - ⇒ 나발의 이름을 짓밟고 다윗의 이름을 높임

고난 속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
다윗처럼 말씀을 잊은 채 마음대로 행동하게 됩니다
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
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임을
기억하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

